특별기고

영화 속 인류의 미래, 광주가 리드하자

송재식
광주시 정책기획관

영화를 그다지 즐겨보지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영화 2편을 소개할까 한다.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킹스맨'이다. 화려한 액션과 정밀한 CG는 젊은 취향과는 거리가 먼 나마저도 끝까지 빠져들게 했다. 특히 '악역'으로 나오는 '타노스'와 '발렌타인'은 주인공만큼이나 내게 관심을 갖게 할 만큼 인상 깊었던 인물이다.

타노스는 우주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유한한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하는 인구의 절반을 제거하고자 했다. '발렌타인'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강제로 줄여 남은 자들의 생존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자는 가치관이 공통점이다.

극단적이면서 위험한 가치관을 지닌 두 악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증가, 자원고갈, 에너지 문제 등의 위기를 인식하고 연구해 온, 제레미리프킨이나 멜서스와 같은 학자들의 기본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빅데이터·AI활용도 높여야

제레미리프킨은 에너지를 변용할 때마다 '엔트로피'(에너지의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결국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손실되므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존의 사회구조는 해체하고 인간과 동물의 노동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맬서스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에 의한 빈곤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도덕적 억제'를 통한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쳐도, 영화 속 악당들처럼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스스로가 현존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고, 인구증가로 인한 도심 과밀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시 정책을 칭찬했던 부분은 눈여겨볼 만하다.

광주는 국내 최초의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되고 수소,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등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다.

특히, 수소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구하기 쉬울뿐더러, 타노스가 걱정하는 것처럼 자원고갈 염려도 없고 공해도 배출하지 않아 엔트로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확장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인다. 마침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에서도 주요 논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유동인구, 차량 흐름, 자원배분 등을 분석함으로써, 획기적인 정보 접근성을 통해 시민이 도시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심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류 생존문제 실마리 접근

광주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난 2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연구개발 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영화 두 편을 통해 연상된 인류 문제를 광주 시정과의 연계성으로 엮은 것이 다소 비약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아는가. 꿈이 현실로 실현될지. 146만 강소도시 광주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와 AI(인공지능)로 지구의 극심한 생태 변화로 위기에 처한 인류 생존문제에서 벗어날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되리라는 것이 헛된 꿈은 아닐 것이다.

기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역지사지'가 우선이다

이혜자
전남도의원

최근 지역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이다. 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중 하나인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언론은 물론 정치권과 행정기관, 주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현재 군 공항 이전은 광주뿐 아니라 수원,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으로 선정된 수원공항은 화성시의 반대로 더 이상 진척이 없으며, 이전부지 선정을 앞둔 대구공항도 군 공항만 이전하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이해하기 힘든 언론 보도를 접했다. 전남도지사가 전남으로의 군 공항 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한 당사자 중 한명으로선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서둘러 당시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 전문을 정독했다. 발표문에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 시·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간다"고 적시됐다.

발표문 어디에도 군 공항 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합의'와 '협력'은 엄청난 차이다. 정치권이나 언론 등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광주시 일각에서는 민간공항 이전을 양보했으므로 군 공항 이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2006~2010)에는 무안공항은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과 연계, 2007년 말까지 완공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발전시키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 개항 시 국제선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내선은 향후 이용수요 등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제4차(2011~2015), 제5차(2016~2020) 기본계획에도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는 등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은 무안공항 개항부터 국가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과 광주 군 공항의 이전은 분명히 별개의 사업이다. 민간공항의 이전 합의를 명분으로 군 공항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 간 상생협력 사업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무이다. 하지만, 중차대한 국가 안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생·협력'이라는 감성에 의지해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군 공항 이전을 빌미로 지역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시에서 이전 대상지역으로 건의한 해남·영암·무안·신안 등 4개 군 6개 지역은 전남 관광의 핵심자원이자 전국 최대의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지이다. 소음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농수축산업에 직격탄이 돼 주민 생계위협은 물론 관광객 감소에 따른 음식·숙박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광주공항 개발 이익금으로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임에도 마치 국가에서 4,500억원의 지원이 확정돼 이전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원사업비 4,500억원 중 완충지 매입, 이주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주민 지원사업은 미미하다. 현행법으로는 직접적인 소음피해 보상관련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섬, 바다, 아름다운 해안선 등 지역 주요 관광자원 훼손뿐 아니라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불 보듯 한 상황에서 이전 지역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저항이다. 군 공항 이전이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또한 당연하다.

진정한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한쪽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군 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전남 양 시·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보다는 양 시도가 진정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마련과 주민 공감대 등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자광장

노인학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

오는 15일은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의 14%를 넘겼고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대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걸까.

2017년 경찰청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총 6,088건, 2018년은 7,624건으로 전년 대비 25.2%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노인이 직접 신고한 건이 전체 건수의 68.13%에 달한다.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노인 학대 행위자는 남성이 전체 행위자의 70.3%를 차지하고 자식과 배우자가 70.6%나 된다. 주요 학대 행위자가 친족이라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의식주를 함께하는 가족, 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 신고가 지연·은폐되는 특성이 있고 더 안타까운 점은 학대 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도 9%나 되는데 노인이 친족들의 돌봄을 거부해 스스로 돌보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방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친족에 의한 학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보니 give and take(주고 받기)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지금 노인이 된 부모들은 자식들이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노심초사 보살펴왔을 것이다. 이제 그 보살핌을 우리 자식들이 노인이 된 그들에게 되돌려 드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누구나 노인이 되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꾼다. 존중받아야 할 노인의 삶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때이다.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경제부 (062) 720-1066~67
사회부 (062) 720-1050~54
사회2부 (062) 720-1043~45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진부 (062) 720-1040
편집부 (062) 720-1070
기획실 (062) 720-1005
논설실 (062) 720-1032
월간국 (062) 720-1006~07
관리국 (062) 720-1012
판매국 (062) 720-1098
사업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처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사설

월드컵 준우승 젊은 선수들 '장하다'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 선수들이 FIFA 주관 월드컵대회에서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쉽게 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우승컵은 놓쳤지만 준우승 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고 장하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어린 대표선수들이 국민 앞에 보여준 모습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미래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대표팀에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다. 지난 83년 멕시코대회 이후 '어게인 4강신화' 재현이 표면적 목표였으나, 실은 조별리그 통과도 걱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속한 조가 사실상 최악의 '죽음의 조' 였기 때문이다. 시작도 전부터 우승 후보로 꼽히던 포르투칼을 비롯 아르헨티나, 남아공과 한조를 이뤄 조별리그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보란듯이 죽음의 조를 통과해 16강, 8강, 4강을 거쳐 결승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젊은 선수들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다.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한 모습과, 경기를 즐기면서도 결정적일 때 무섭게 집중하는 집중력은 과거 우리 어른 세대들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다. 특히 경기에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비록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전 세계인 앞에 보여준 경기력과 당당한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승컵에 못지않다는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회를 보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당당한 자세와, 함께하는 긍정적 모습을 가슴 뿌듯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시 한번 고생한 우리 감독과 선수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문화전당 부설주차장 개방 박수보낸다

광주시 동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최근 동명동 '카페의 거리' 상권을 살리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전당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잘 한 일이어서 박수를 보낸다.

문화전당 부설주차장 전면 개방은 인근 상가와 방문객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기도 했다. 사실 문화전당이 있는 동구에 가려면 주차장 찾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골목마다 자동차가 빼곡하게 들어차서 주차는 고사하고 운전하기도 벅찼다. 문화전당 주차장을 전면개방하게 돼 주차문제가 해소되면서 숨통이 조금 트일 것이다.

앞서 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동명동 일대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독립서점 등 상업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주차장도 개방하면 '카페의 거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주차비 부담을 줄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전당 주차장 전면 개방은 공연관람객들도 크게 환영할 일이다. 쉽게 갈 수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문화전당이 명실상부하게 문화 중심지가 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은 주민들 편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문화전당과 동구가 상생협력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던가.

주차장 개방은 첫 걸음마이고 작은 일이지만 양측이 하나 둘 협력해서 사업을 벌인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광주의 이미지는 더욱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쏠리는 이목

기자수첩

박선옥
제2사회부 기자

오는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이 열린다.

여순사건은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으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2011년 10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6개월 만이다.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이다.

국군 14연대는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정부군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 신속하게 진압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문제는 이후부터 일어났다. '좌익'과 '우익'이란 말의 의미도 모르는 지역민들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랐고 내 편이 아니면 가차 없이 죽였다.

특히 진압군이 좌익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 아래 일반 시민들까지 잡아내는 과정에서 피해가 컸으며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하나에 반란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하기도 했다.

여순 사건은 유족과 지역민을 위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아픈 과거사이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주철희 여순항쟁 연구가는 최근 재판을 앞두고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무죄 판결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며 애매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지역민들 또한 우려하는 부분이 공소기각 판결이다.

이번 재판에는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판결집행 명령서만 존재하기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미 제주 4·3항쟁이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책위는 형 집행 과정에서 절차법 무시를 이유로 법 집행 자체가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여순항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다. 강산이 일곱 번 변한 긴 세월이다.

이번에 열리는 재판은 그동안 유족과 지역민에게 아로새겨진 아픔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통한의 세월을 보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기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